

“故 김흥빈 대장 구조비 6813만원 내라”

정부, 광주시산악연맹에 수색·구조비용 청구 국가 소송 제기 논란 추모식 1주기 앞두고 연맹 당혹 “국위 선양 목적, 정부가 부담해야”

정부가 2021년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 등반에 성공한 후 실종된 고 김흥빈 대장의 수색·구조비용을 광주시산악연맹에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광주시산악연맹에 따르면 정부(외교부)는 지난 5월 31일 연맹 외 5명을 상대로 김흥빈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구조에 사용한 6800만원 상당의 비용 등을 청구하는 국가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가 대신 비용을 지불하고 원인 제공자 등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에 나선 것이다.

소장에는 지난 해 7월 김 대장의 실종 사고 당시 헬기를 이용한 3차례에 걸친 수색작업에서 6813만 8000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비용 모두를 김

대장이 소속된 광주시산악연맹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교부는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상 자신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 외교부가 청구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소송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광주시산악연맹은 김 대장이 국위 선양을 위해 히말라야 등반에 나섰다는 점을 들어 수색과 구조작업에 들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그의 업적을 기려 1등급 체육훈장인 ‘정통장’을 추서하기도 했다.

피길연 광주시산악연맹 회장은 “김 대장이 개인

영달이 아니라 장애인으로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등반에 나섰다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구조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하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산악계에서는 김대장의 1주기 추모식을 앞두고 정부의 국가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으로 7대륙 최고봉에 족적을 남긴 김 대장은 지난해 7월 파키스탄령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에 오름으로써 장애인 최초 히말라야 8000m급 등정에 성공했다.

하지만 하산하던 도중 해발 7900m 부근에서 실족한 뒤 구조 과정에서 절벽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정부는 파키스탄과 중국 등에 협조를 구해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찾지 못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고(故) 김흥빈 대장 1주기 추모식이 지난 16일 광주시장애인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고인의 영전에 헌화하며 추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주말·휴일에도 코로나 확산세 여전

광주·전남 2000명대 육박... 전국 4만명대 기록

주말·휴일에도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늘면서 이를 연속 4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여파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도 2000명대를 육박할 정도로 확산세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4만342명으로 전날(4만1310명)에 이어 이틀째 4만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주중에 늘었다가 주말·휴일로 가면서 검사자수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런 패턴을 벗어날 정도로 확산세가 뚜렷하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 4월 24일(6만 4696명) 이후 12주 만에 가장 많다. 1주일 전인 지난 10일(2만 397명)의 2.0배다. 이날 초 이후 1주일 사이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안팎으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여름 재유행의 정점 시기를 9월 중순-10월 중순으로 예상하면서 하루 최대 확진자 규모를 20만 6600명으로 예상한 바 있지만,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행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전남지역도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2000명대에 근접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광주와 전남은 각각 937명과 908명의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1845명을 기록했다. 장성의 한 군부대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16명, 12일 23명, 13일 16명, 14일 19명 등 연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광주와 전남은 최근 확진자가 2배 가량 급증하기 시작, 지난주 연일 8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다 다시 900명대로 확진자가 늘어났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11일 확진자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지급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지난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등 제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지난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 24에 로그인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확진자가 아닌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격리 가구원 가운데 근로자가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필요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행자 면세 한도 600달러→800달러로 올린다

8년만에 상향... 관광산업 지원·면세업계 경쟁력 강화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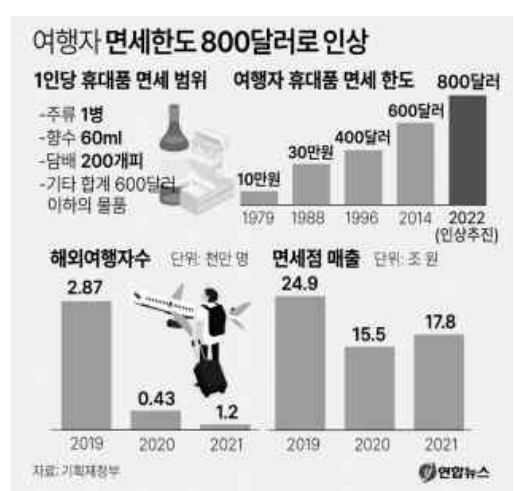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원래 5000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 한도가 500달러 중반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지난해 말 정부의 설명이었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는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이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095만원에서 지난해 4025만원으로 30% 늘었고,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



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전남도, 스마트팜 전문청년창업 1기 보육생 38명 수료식

전남에 정착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을 이끌 스마트팜 전문 청년창업 농업인이 배출됐다.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소멸되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순천대에서 ‘스마트팜 청년창업 1기 보육생 수료식’을 개최해 교육을 마친 38명을 축하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과정은 스마트팜에서 취·창업에 바라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20개월간 스마트팜에 특화된 현장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해 실제 독립 경영이 가능한 전문가로 육성한다.

수료생에게 고품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농장 우선 입주,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 부여, 청년후계농 선발 시 가점 등 스마트팜에서 취·창업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준다.

1기를 마친 38명 중 30명(79%)은 전남을 비롯

해 경기 수원시·안양시, 경남 하동군 등 타 시도 스마트팜에 취·창업했다. 직종별로는 자가영농 13명, 고품 혁신밸리 임대형팜 입주 12명, 농업법인 취업 5명이다. 이중 전남에서 자가영농하거나 농업법인에 취업하기로 한 수료자는 24명으로, 도내 청년농업인 유입을 늘리는데 한몫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임야 삽·니·다

천평이상, 지분환영, 맹지사절
010-3605-5000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